

임상한의사 처방의 약물 배합 빈도 분석

차웅석¹, 이태형¹, 이병욱²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²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학부

ABSTRACT

Analysis of Herbal combination frequency on Clinical Herbal formulation

Woong-Seok Cha¹, Tae-Hyung Lee¹, Byung-Wook Lee²

¹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Since its enactment in 1987, the 56 standard prescriptions covered by insurance have remained unchanged from its original version. In this study, we tried to discover most frequently used herbal combinations by analyzing prescriptions used in actual clinical settings.

Methods : We have built Structured Query Language to analyze herbal combination and progressed this analysis through analyzing the frequencies of medicinal herb combinations in medical prescription slips.

Results : We have found out that traditional Korean medical doctors use about 13 herbs in a prescriptions and usually use 253 kinds of herb. And We have found out the most frequently used herbal combination.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can suggest new method to decide what do we need on

-
- 교신저자 : 이병욱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Tel : 051-510-8451 E-mail : omis@pusan.ac.kr
 - 접수 : 2011/ 10/ 12 수정 : 2011/ 11/ 07 채택 : 2011/ 11/ 21

insurance prescriptions.

Key word : herbal combination, analysis of prescriptions, herbal medicine products

I. 서 론

한방의료는 1984년 12월 청주와 청원 지역의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1987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¹⁾. 그러나 1995년부터 이미 94년 8월 1일 기준으로 56개의 처방과 68종의 단미엑스산제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56개의 고시 처방중 16개의 처방에만 가미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기한 연구¹⁾가 있었고, 이후 한약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인식²⁾,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대상 병증, 약물사용평가 시스템 구축, 복합과립제 건강보험 급여 시행방안 등에 관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1년 3월 9일 개최된 '건강보험! 한방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건강보험의 한방 영역의 보장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현재 한방의료보험의 급여 항목인 고시처방에 대한 문제점과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고시처방의 변경이나 추가에 필요한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아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실제 임상에 자주 사용되는 처방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치료용 첩약 의료보험의 시행에 앞서 현재 보험급여에 포함되어있는 56종 처방의 변경 혹은 확대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초 조합을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본 론

1. 기존의 연구와 현황

한국한의학연구원의 Oasis 시스템에서 '한약제제', '복합과립제', '본초 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약제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조사한 뒤 관련성이 많은 6건의 논문과 본초 조합의 분석에 관한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통계자료 중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 실적 자료를 참고 하였고, 2004년 원광대학교에서 수행한 한약제제 재평가 도입방안 연구(식품의약품안정청 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1995년 개제된 한방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험급여에서의 기술료, 단미엑스산제와 보험급여 처방의 확대 및 가미의 제한 철폐, 새로운 제형의 보험급여 확대, 첩약 의료보험급여 실시 등을 56처방 위주의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04년 한약제제의 권리보호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³⁾에서는 한약복합제제의 기본방 설정의 기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보험급여에 포함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현황분석등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2006년 한약제제 보험급여 주상병과 처방분석⁴⁾에서는 사용빈도가 적은 56종 한약제제의 조정과 가감에 사용되는 단미엑스산제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기본방으로 많은 가감방을 가지고 있는 처

방을 활용한 임의처방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실적의 자료⁵⁾를 보면, 다용처방 3개의 처방실적(오적산: 3,704,326일, 소청룡탕:818,956일, 삼소음:753,695일)과 적게 사용된 처방 처방실적(승양보위탕:31일, 안태음:205일, 당귀연교음:385일)의 빈도가 매우 차이가 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실적이 적은 엑스제의 급여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새로운 엑스제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08년 본초 조합을 이용한 방제의 유방분석 DB 구축 연구⁶⁾, 인터넷상 동의보감 방제의 약물구성 계보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⁷⁾에서는 기존의서에 기록된 처방의 내용을 DB에 입력하고 본초의 조합에 따라 관련 방제를 추출하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사용자가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련 조합의 수량이 표시되는 방식을 제공하였다.

2008년 약물사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약제제의 실태 조사 연구⁸⁾에서는 기존의 56개의 기준처방 이외에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비급여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연구 대상 기관이 전국적이지 못하고 대표성을 지지하지 못하는 한계점등이 한계점이라고 밝혔으나 앞으로의 한약제제에 대한 연구진행 방향설정 등에 대하여 일정부분 제시하였고, 한약제제의 적응상병명이 양방의 상병명에 적응시키고 있다는 등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2004년 한약제제 재평가 도입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1987년 실시된 한방의료보험에서 56종 단미 엑스제가 사용된 이래 지금까지 15년 이상 한약제제가 이용되어 청구되고 있으나 전국의 일선 한방병의원에서 사용 시 약효와 용량에 대한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약효재평가나 제제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 없다.”⁹⁾고 하여 56종의 기준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성 방제의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 방제명에 의존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9일 개최된 ‘건강보험! 한방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건강보험의 한방 영역의 보장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학교수는 “현행 혼합제제(68종 단미제, 56종 기준처방)를 확대하고 과립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늘려나가야 하는 한편 복합과립제의 우선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한약제제 결정구조 문제와 관련 현재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복합과립제 문제는 실제 식의약청 허가를 받고 약국서 판매하고 있고, 한방의약분업이 안된 점 등이 있는데 일단 논의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이 과장은 “치료용첩약과 관련 이 부분은 기성 한의서에서도 없고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확대 문제는 한의학 원리에 따른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¹⁰⁾.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총 713건의 처방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중 127건의 데이터는 手記 處方箋의 형태였으며, 40건은 전자차트의 처방전을 출력한 형태, 546건은 텍스트 파일형태로 수집되었다.

2) 분석 방법

임상처방의 본초구성의 분석 방법은 방약합편 수록 처방 내의 약물 조합 빈도 연구¹¹⁾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분석된 본초의 조합에 대한 해설은 동의보감 월국환가미방의 방제학적 분석¹²⁾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참고하였다.

(1) 임상처방에 사용된 정보 중 본초의 분량부분은 분석하지 않고, 본초의 종류에 한정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2) 713건의 처방 중 실제 본초의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672건의 처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3) 각 조합의 빈도수의 평균+표준편차 보다 큰 첫째 자연수를 새로운 조합의 검색대상에 필요한 최소 빈도수로 설정한다.

(4) '(3)'의 단계에서 추출한 본초1개 조합을 가진 처방 목록에 본초 1개를 추가로 입력하여 +1개의 본초 조합을 가지는 처방 목록을 작성한다.

(5) '(3)~(4)'의 단계를 반복하여 빈도수의 평균+표준편차 보다 큰 첫째 자연수 혹은 7개 보다 많은 조합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여 계산한다.

3. 분석 결과

1) 분석대상 조합의 선택

672건의 처방에서는 평균 13.04개의 본초가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본초는 炮製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253종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첫째 2개 조합의 생성의 대상이 되는 1개의 조합의 최소 빈도수는 아래와 같이 99개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본초에 24개에 대하여 2개의 조합을 생성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초의 조합별 평균 빈도수와 표준편차 및 최소 검색대상 빈도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1. 본초의 사용빈도

본 초	빈 도	본 초	빈 도
甘 草	459	香附子	160
生 薑	349	黄 芪	160
陳 皮	308	麥門冬	135
茯 苓	307	柴 胡	134
當 歸	285	黄 芩	122
大 棗	274	砂 仁	120
白芍藥	269	紫蘇葉	120
白 朮	250	桂 枝	115
人 參	223	肉 桂	114
半 夏	218	山 藥	107
川 芎	209	茯 神	105
熟地黄	169	桔 梗	104

Table 2. 본초 조합수 별 사용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합수	평균빈도	표준편차	최소값
1	34	64.899111	99
2	16	30.175619	47
3	10	16.636714	27
4	7	10.687041	18
5	5	8.1123165	14
6	5	7.3124615	13
7	5	7.8255351	13
8	6	9.0963268	16
9	13	10.877789	24
10	23	8.8845397	32
11	25	5.4618188	31
12	24	4.2312624	29
13	23	2.9192018	26
14	23	0	24

2) 다빈도 본초의 조합

본 연구에서 수집된 672건의 처방에서 사용된 본초의 종류가 253종이므로, 253 종의 본초를 조합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2^{253} - 1$ 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672건의 처방에서 사용된 조합은 이보다 적다. 위의 분석대상 조합 방식에 따라 최소 조합수 이상의 빈도수를 가지는 조합은 46,684건이 존재했다.

Table 3. 본초 조합 별 20회 이상 사용된 본초 조합의 종류

조합수	종 류	조합수	종 류
1	24	8	10,386
2	213	9	414
3	1,095	10	167
4	3,584	11	55
5	7,651	12	11
6	10,872	13	1
7	12,227	14	2
Sum			46,684

3) 각 조합별 상위 5위 사용된 본초의 조합

본 연구에서 수집된 672건의 처방에서 각 조합 별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조합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甘草, 生薑}이 284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다.

각종 종합 의서 및 처방서들에서 나오는 상기 본초 조합의 횟수를 살펴보면 동의보감 539회(539/3417), 방약합편 156회(156/813), 동의수세보원 17회(17/76), 의학입문 263회(263/2340), 경약전서 258회(258/2611), 상한론 32회(32/113)이다. 동의보감, 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 상한론의 경우 4~6개 처방당 1개 꼴로 감초와 생강 조합이 활용되었다. 의학입문과 경약전서의 경우 10개 처방당 1개 꼴로 상기 조합이 활용되었다. 상기 약재의 조합이 과거부터 여러 차례 활용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대에도 감초와 생강의 조합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able 4. 상위 조합 5(2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甘草, 生薑	284	
大棗, 生薑	261	
甘草, 當歸	238	
甘草, 陳皮	238	
生薑, 陳皮	227	生薑橘皮湯

(2) 3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甘草, 大棗, 生薑}이 217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었다.

‘감초 생강 대조’의 조합은 동의보감 233회(233/3417), 방약합편 81회(81/813), 동의수세보원 16회(16/76), 의학입문 141회(141/2340), 상한론 29회(29/113), 경약전서 134회(134/2611) 등장한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감초 생강 진피’의 조합이 동의보감 235회, 방약합편 69회, 동의수세보원 11회, 의학입문 83회, 상한론 0회, 경약전서 82회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상기 조합이 한의학 처방에 활용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able 5. 상위 조합 5(3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甘草, 大棗, 生薑	217	溫脾湯+生薑
甘草, 生薑, 陳皮	182	生薑橘皮湯+甘草
大棗, 生薑, 陳皮	171	生薑橘皮湯+大棗
半夏, 生薑, 陳皮	162	生薑橘皮湯+半夏, 生薑半夏湯+陳皮
甘草, 當歸, 白朮	162	

(3) 4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甘草, 大棗, 生薑, 陳皮}가 132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었다.

상기조합은 동의보감 100회, 방약합편 36회, 의학입문 46회, 사상의학 10회, 경약전서 45회 상한론 0회 등장한다. 4개 본초 조합의 상위 5위까지에 활용된 약재 조합을 보면 ‘반하 진피 생강 복령’, ‘감초 생강 대조 백출’, ‘반하 진피 생강 대조’, ‘진피 생강 대조 복령’으로 이진탕 기본방(반하 진피 복령 감초)에 생강 대조 정도를 가한 조합이 보인다.

Table 6. 상위 조합 5(4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甘草, 大棗, 生薑, 陳皮	132	溫脾湯+生薑橘皮湯
半夏, 茯苓, 生薑, 陳皮	130	小半夏加茯苓湯+陳皮
甘草, 大棗, 白朮, 生薑	128	溫脾湯+白朮+生薑
大棗, 半夏, 生薑, 陳皮	125	生薑橘皮湯+大棗+半夏
大棗, 茯苓, 生薑, 陳皮	120	生薑橘皮湯+大棗+茯苓

(4) 5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大棗, 半夏, 茯苓, 生薑, 陳皮}가 104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었다.

5개 본초 조합역시 상위 5위까지 활용된 약재 조합을 살펴보면 ‘감초 진피 생강 대조 백출’, ‘감초 생강 대조 당귀 백출’, ‘감초 반하 진피 생강 대

조 '감초 반하 진피 생강 복령'이다. 이 역시 4개 본초 조합에서 발견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진탕을 기본으로 생강 대조를 가한 처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백출 당귀 등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초 생강 대조 당귀 백출'의 조합은 귀비탕, 도씨보중익기탕, 자음강화탕, 황기익기탕 등의 처방에 나타나는 조합으로 이진탕을 기본방으로 응용된 처방 활용 노선과는 또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Table 7. 상위 조합 5(5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大棗, 半夏, 茯苓, 生薑, 陳皮	104	小半夏加茯苓湯 + 大棗 + 陳皮
甘草, 大棗, 白朮, 生薑, 陳皮	94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89	
甘草, 大棗, 半夏, 生薑, 陳皮	88	
甘草, 半夏, 茯苓, 生薑, 陳皮	83	小半夏加茯苓湯 + 甘草 + 陳皮

(5) 6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甘草, 大棗, 半夏, 茯苓, 生薑, 陳皮}가 67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 있었다.

상기 조합은 정확히 이진탕에 생강과 대조를 가한 조합으로 정전가미이진탕, 삼소음, 인삼양위탕, 의학입문의 육군자탕 등에 활용되는 조합이다. 이 외에도 6개 본초 조합의 상위 5위까지 활용된 약재 조합에는 백작약, 당귀, 백출, 인삼, 황기 등의 약재들의 활용이 보인다. 특히 '당귀 백출'의 조합이 상위 5개 중 3번 등장하는데 5개 조합에서 1번, 7개 조합에서 1번 보인 후로 등장하지 않는 조합이다. 특히 '당귀 백출'의 조합은 항상 '생강 대조 감초'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7개 조합에서 인삼, 황기까지 조합이 되는 것으로 보아 보중익기탕의 가미방으로 주로 활용(방약합편의 가미보익

탕 등)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Table 8. 상위 조합 5(6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甘草, 大棗, 半夏, 茯苓, 生薑, 陳皮	67	
大棗, 半夏, 白芍藥, 茯苓, 生薑, 陳皮	63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人蔘	62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陳皮	61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黃芪	58	

(6) 7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大棗, 半夏, 白芍藥, 茯苓, 茯神, 生薑, 陳皮}가 50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 있었다.

상기 조합은 방약합편 자음건비탕의 배오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상기 7개 약재 조합은 이후에도 조합별 최다빈도에서 복신이 나올 때 항상 이 조합에 약재가 추가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7개 조합 상위 5위에는 자소엽이 처음 나오는데 곽향정기산, 삼소음 등에서 상기 조합과 유사한 약재 조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처방의 배오 조합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9. 상위 조합 5(7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大棗, 半夏, 白芍藥, 茯苓, 茯神, 生薑, 陳皮	50	
大棗, 半夏, 白芍藥, 茯苓, 生薑, 紫蘇葉, 陳皮	49	
桂枝, 大棗, 半夏, 白芍藥, 茯苓, 生薑, 陳皮	48	
甘草, 當歸, 大棗, 白朮, 生薑, 人蔘, 黃芪	48	
桂枝, 半夏, 白芍藥, 茯苓, 生薑, 紫蘇葉, 陳皮	45	
.....		

(7) 8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桂枝, 大棗, 半夏, 白芍藥, 茯苓, 生薑, 紫蘇葉, 陳皮}가 45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 있었다.

최다 빈도의 조합은 앞서 나온 7개 조합 상위 5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상위 5위안에 있는 다른 처방들은 등심초, 목통, 청피, 상백피와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 있어 새로운 약재 조합이 눈에 들어온다. 상기 조합은 분심기음에 나오는 약재 조합으로 실제 8개 본초 조합의 상위 5개 조합 중에서는 백작약이 들어간 1위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조합은 모두 분심기음의 약재를 벗어나지 않는다.(단, 계피 대신 계지가 보인다.) 따라서 분심기음의 방해를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Table 10. 상위 조합 5(8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桂枝, 大棗, 半夏, 白芍藥, 茯苓, 生薑, 紫蘇葉, 陳皮	45	
桂枝, 大棗, 燈心草, 半夏, 桑白皮, 紫蘇葉, 陳皮, 青皮	44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桑白皮, 生薑, 陳皮, 青皮	44	
桂枝, 大棗, 木通, 半夏, 桑白皮, 紫蘇葉, 陳皮, 青皮	44	
桂枝, 大棗, 燈心草, 半夏,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44	
.....		

(8) 9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등 8개의 조합이 44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 있었다.

9개 조합 역시 분심기음의 배오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상위 5위까지의 약재 조합군을 모두 살펴봐도 결국 분심기음의 약재 배오안에서 한 두약재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Table 11. 상위 조합 5(9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	44	
桂枝, 大棗, 燈心草, 半夏,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	44	
桂枝, 大棗, 木通, 半夏,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	44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	44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44	
.....		

(9) 10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가 44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 있었다.

역시 분심기음의 배오를 벗어나지 않는다. 분심기음의 배오가 아닌 약재로는 작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약이 있는 경우는 보통 복령, 반하, 진피, 생강, 대조가 함께 한다. 이상의 조합은 유기음자, 자음건비탕, 인삼궁귀탕, 승양익위탕 등에서 보이는 약재 조합이다.

Table 12. 상위 조합 5(10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	44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白芍藥,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	43	
桂枝, 大棗, 木通, 半夏, 白芍藥,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青皮	43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茯苓, 桑白皮, 生薑, 陳皮, 青皮	43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茯苓, 桑白皮, 紫蘇葉, 陳皮, 青皮	43	
.....		

(10) 11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桑白皮, 生薑, 陳皮,

靑皮} 등 10개의 조합이 43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 있었다.

분심기음의 배오를 벗어나지 않는다. 10개 본초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Table 13. 상위 조합 5(11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桑白皮, 生薑, 陳皮, 靑皮	43	
桂枝, 大棗,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43	
桂枝, 大棗, 燈心草, 半夏, 白芍藥, 茯苓,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43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43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43	
.....		

(11) 12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가 43회로 가장 많은 빈도의 조합이 있었다.

분심기음의 배오를 벗어나지 않는다. 11개 본초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Table 14. 상위 조합 5(12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43	
桂枝, 大棗,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茯苓神,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37	
桂枝, 大棗, 燈心草, 半夏, 白芍藥, 茯苓, 茯苓神,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37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白芍藥, 茯苓, 茯苓神,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37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茯苓, 茯苓神,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37	
.....		

(12) 13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茯苓神,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가 37개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조합이었다.

분심기음의 배오에 앞서 다음 조합 약제로 나왔던 복신과 작약 정도가 추가되었다. 복신, 작약 및 기타 약제의 조합은 7개 약제 조합에서 살펴본 듯이 자음건비탕의 약제 배오에 있는 조합이다.

Table 15. 13개 조합에서 빈용된 조합

본초 조합	빈도	비고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茯苓神,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37	

(13) 14개의 본초 조합에서는 {桂枝, 大棗, 燈心草, 木通, 半夏, 白芍藥, 茯苓, 茯苓神, 桑白皮, 生薑, 紫蘇葉, 陳皮, 靑皮, 黃芩}의 1개의 조합이 23회의 빈도를 가졌으며, 기준을 통과한 조합이었다.

13개 본초 조합에 황금이나 치자가 들어간 처방이다. 즉 약제의 분량이 늘어날수록 분심기음을

기본방으로 하는 형태의 처방이 약제가감이라는 방법을 통해 변화하고 있으며 황금이나 작약처럼 열을 꺼주는 약제, 복신처럼 안신시켜주는 약제 등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 15개의 조합부터는 특별히 많은 조합이라고 평가할 만한 조합이 없었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56종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개선을 위한 본초 조합 분석방법 도입의 가능성을 시험한 것이며, 분석 방법의 실효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일부 임상가를 대상으로 처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분석방법으로 충분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임상가에서 수집한 672건의 처방자료를 분석하여 조사에 응한 한의사들은 253종의 본초를 사용하고 1개의 처방에 평균 13.04개의 본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加味를 고려하여 복합제제를 선택할 때 본초 구성이 13종 미만인 방제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가 국가 전체 혹은 적절한 통계조사의 방법이 사용되어 자료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56종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존의 문헌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임상에 사용되는 처방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처방명이 아닌 본초의 조합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한 연구 방식은 기존의 연구에서 실시하지 않은 연구방식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할 경우, 보험대상 역기스제의 추가 혹은 변경 시 실제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초의 조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지속적인

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본초조합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특정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방제의 본초조합을 분석할 경우 변증별 기본 본초조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서부일, 김선희. 한방의료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서의학. 1995;20(3):3-20.
2. 신현규, 김윤경, 강창희, 최선미. 제약업계의 한약제제 연구개발 현황 및 허가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한국한의학회연구논문집. 2001;7(1):77-84.
3. 김윤경, 안상우, 김홍준, 최환수. 한약제제의 권리보호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 한국한의학회연구논문집. 2004;10(1):81-95.
4. 박혜정, 오문수, 김은정, 이상규, 박성규, 김윤경. 한약제제 보험급여 주상병과 처방분석. 대한본초학회지. 2006;21(4):1-10.
5. [http://sasis.kiom.re.kr/portal/statistics/list.jsp?ct_idx=31&nPage=1#\(검색일: 2011.06.13\)](http://sasis.kiom.re.kr/portal/statistics/list.jsp?ct_idx=31&nPage=1#(검색일: 2011.06.13))
6. 김정훈, 이병욱. 본초 조합을 이용한 방제의 유방분석 DB 구축 연구. 대한한의학회전학회지. 2008;21(1):123-41.
7. 이병욱외 1인. 인터넷상 동의보감 방제의 약물구성 계보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지. 2008;21:41-7.
8. 고희현, 장보형, 선승호, 전찬용, 박종형, 권동렬, 오미현, 정희, 고성규. 약물사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약제제의 실태 조사 연구. 대한예방의학회지. 2008;12(3):9-20.
9. 권동렬. 한약제제 재평가 도입방안 연구. 1.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2004:16.
10. <http://www.akomnews.com/subpage/detail.php?code=A001&uid=62818&nowpage=1&page=/>

- news/all.php (검색일2011.06.13.)
11. 백진웅, 이병욱. 방약합편 수록 처방 내의 약물 조합 빈도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11; 24(4):55-67.
 12. 박성규, 변성희, 이병욱, 김상찬. 동의보감 월국환가미방의 방제학적 분석.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1;19(1):79-90.